

우리말 잘 듣는 수입차... 음성인식 더하니 안전성·재미 ↑

자동차 시승기

볼보 '신형 XC60'

국내 소비자 위해 300억 투입 AI플랫폼 '누구', 티맵 등 탑재 음성인식 정확도 극대화 중점 원격시동 등 '볼보온콜' 지원 주행 성능·연비 등은 아쉬워

볼보자동차가 국내 소비자를 위해서만 300억원을 쏟아부었다. 티맵모빌리티와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만들면서 단점으로 지적되던 내비게이션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고 커넥티드카 세상도 한결음 앞당기게 됐다.

볼보가 출시한 신형 XC60은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배기구를 안보이게 숨긴 것이 가장 큰 외관 특징이다. 친환경차로 대체될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 화법을 적용했다는 설명. 파워트레인도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만 개발됐다.

가장 큰 변화는 '커넥티드'하다. 볼보는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신형 볼보 XC60. 전동화 트렌드에 맞게 배기구를 안보이도록 디자인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

XC60에 처음 도입했다. 일부 차량 제어 권한까지 부여하면서 커넥티드카로 한 단계 나아갔다는 평가다.

특히 볼보코리아는 국내 소비자만을 위해 개발한 AI 플랫폼 '누구'를 탑재하며 완성도를 대폭 높였다. 종전까지는 구글맵을 쓴 탓에 불만이 적지 않았지만 국산 내비게이션인 티맵뿐만 아니라 '누구'와 '플로' 등까지 제공하면서 소비자 요구를 완전히 해결하는데 성공했다. 계기반과 HUD까지도 누구, 티맵 등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함께 작동한다.

누구의 가장 큰 장점은 음성 인식이 다. 누구는 이미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스피커 등을 통해 우수한 인식률을 인정받은 바 있다. 볼보는 누구를 차량에 단순 탑재하는 것뿐 아니라 마이크를 운전석 천장에 설치하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음성인식 정확도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실제로 여러 환경에서 주행 중 '아리아' 호출을 듣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오작동 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공기조절 정도다. 안전을 이유로 창문을 여닫거나 와이퍼를 작동하는 등 조작은 "이 차량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불가능하게 했다.



누구 플랫폼은 음성인식으로 내비게이션 뿐 아니라 차량 조작, 스마트홈까지도 가능케 한다. /볼보자동차코리아

누구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누구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활용이 가능하다. 플로에서 기분에 따른 음악을 추천받을 수도 있고, 날씨나 뉴스 등을 음성으로 안내받는 것도 된다. 누구 플랫폼에 IoT 기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차에서도 제어할 수 있다. 마치 차량용 스마트폰을 트림까지 연동해서 쓰는 것과 같다.

드디어 볼보온콜도 지원한다. 원격으로 차문을 열거나 시동을 걸고, 사고시에는 자동으로 사고접수까지 해주는 텔레매틱스 서비스다. 1열 천장에 모듈이 설치됐으며, 버튼을 3초 이상 눌러 긴급

서비스센터와 연결할 수 있다.

볼보 관계자는 오디오 시스템인 바위스&윌킨스 성능을 강조했다. 저작권 때문에 성능이 제대로 소개되기 어려웠으며 시승 행사에 문제를 해결한 음악까지 제공했다.

ADAS 정확도도 다소 개선됐다. 파일럿 어시스트 작동도 버튼만 누르면 되는 방식으로 간소화했다. 종전까지는 전면 유리 상단에 '인텔리 세이프' 모듈에 카메라와 센서 등을 모두 탑재했었지만, 카메라 등 일부 기능을 전면 그릴 등으로 따로 배치하면서 인식률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전방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더 빨리 인식하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다. 차선 유지 기능도 더 정확해진 듯 했다.

주행 성능은 아쉬움이 없지 않다. 급하게 가속페달을 밟을 때 다소 지연이 있었다. 주행 모드도 바꿀 수 없다. 연비도 10km/L 전후로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했다기엔 꽤 부족했다. 물론 이 단점들이 볼보 브랜드의 안전과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편리함 등 장점을 무력화할 이유는 못된다. 오직 한국 소비자를 위해 거액을 투자하는 정성에는 더더욱 보잘것 없는 문제다.

/김재홍 기자 juk@metroseoul.co.kr

KT, AI 인프라 역량 강화... 클라우드 시장 선도

AI 솔루션 기업 '모레'와 업무협약 연말 AI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출시

KT가 대용량 데이터 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인프라 역량을 강화한다.

KT는 국내 AI 인프라 솔루션 전문 기업 '모레'와 AI 인프라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모레는 AI를 구현하고 실행하기 위한 AI컴파일러·라이브러리 및 대규모 AI 클러스터 운영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글로벌 수준의 대규모 클러스터 자동화 솔루션 및 최적화 운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AI 인프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기업이나 개발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AI 연구 및 서비스를 위한 하이퍼스케일 컴퓨팅 인프라를 직접 갖추는 것보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빌려 쓰는 것이 유리



KT 직원들이 KT 목동 클라우드 센터에서 AI GPU 통합자원 관리 플랫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KT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I 인프라 역량 강화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KT는 모레와 협력해 하이퍼스케일 AI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올 연말 출시할 계획이다. KT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GPU 인프라

환경을 구성하고 GPU 클러스터 성능을 검증 중이다. 대규모 GPU 클러스터링이 주요한 특징이며, 동일 사양의 서비스 대비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KT 클라우드 DX 플랫폼에서 구현된다. 양사는 효율적인

AI GPU 자원 운영을 위한 통합자원 관리 플랫폼도 개발할 예정이다.

KT의 DX 플랫폼은 기업이 디지털 혁신에 필요한 AI, 빅데이터, IoT, 데브옵스(개발환경) 등 다양한 플랫폼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패키지 서비스다. KT는 ▲AI 스튜디오 ▲데이터레이크 ▲IoT메이커스 ▲컨테이너&데브옵스스위트를 제공하며, 다양한 DX 서비스를 지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양사는 소프트웨어 협력을 시작으로 국산 하드웨어를 결합한 서비스까지 중장기적 파트너십을 모색할 계획이다.

KT 이미희 Cloud/DX사업본부장은 "모레가 가진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우수한 역량과 KT의 클라우드 기술·노하우에 기반해 파급력 있는 시너지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KT 클라우드는 앞으로 DX 분야에서의 우수한 파트너사들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플랫폼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강준혁 기자 junhyuk@

SK브로드밴드

음악 버라이어티 '힐링산장 시즌 2'

SK브로드밴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휴먼 음악 버라이어티를 기획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음악 버라이어티 '힐링산장 줄을 서시오 시즌2'를 11일 첫 방송한다고 밝혔다.

MPP 자회사 미디어에스와 공동 제작한 '힐링산장 시즌2'는 힐링이 필요한 스타를 초대해 전국 대표 명소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체험하고 그들의 인생이야기와 고민을 함께 나눈다. 또 시청자들이 공감하고 귀가 호감하는 맞춤형 힐링 콘서트까지 선사한다.

힐링산장은 희망의 메시지와 따뜻한 감성을 전하는 공익형 예능 프로그램으로, 스타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안방에 생생히 전달해 시청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이번 '시즌2'를 제작하게 됐다.

메인MC인산장지는 시즌1과 동일하게 '국민배우' 전광렬이 맡고, 만나기만 해도 힐링되는 '발라드계의 레전드' 이수영과 누구보다 힐링이 필요한 '개업가(개그맨+사업가)' 허경환이 새로 합류해 특별한 케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힐링산장 시즌2의 첫 번째 게스트는 그룹 주얼리 출신의 '원조요정' 이지현이 7년 만에 방송 나들이에 나선다. 주얼리 원년 멤버에서 연기자로,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로 인생 3막을 열고 있는 이지현과 함께 충남 보령으로 힐링 여행을 떠난다. 그녀가 지난 7년간 왜 방송을 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안타까운 속사정을 방송에서 최초 공개한다.

/강준혁 기자

LGU+, XR기술 활용 SM과 언택트 쇼 진행

'U+아이돌Live'서 단독 중계 초실감형 기술로 생생하게 관람

LG유플러스가 XR(확장현실)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언택트 쇼를 진행한다.

LG유플러스는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XR SHOW'를 'U+아이돌Live'에서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기획한 이번 비대면 공연은 오는 12일 'NCT DREAM', 내달 9일 'NCT 127', 20일 '에스파' 순으로 진행된다. 모든 공연 실황은 'U+아이돌Live'에서 단독 중계되며, 티켓은 'U+아이돌Live' 앱·웹페이지와 'SMTOWN & STORE'에서 판매한다.

이번 온라인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무대에 초실감형 기술을 덧입힌 XR 공

연이다. 관객들은 'NCT' 및 '에스파'의 다양한 멤버들이 가상현실 속에서 펼치는 공연을 보다 실감나게 즐길 수 있게 된다.

XR 무대를 포함한 언택트 공연은 통신사 관계없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생중계 입장객 수의 제한도 없다. 가장 먼저 개최되는 NCT DREAM의 언택트 공연 'DREAM CINEMA'는

12일 오후 8시부터 90분간 총 5곡의 무대로 꾸러진다. 고객들은 스페셜 AR 티켓, 포토카드 세트, 포스트카드 북 등 다양한 기획 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구매 티켓으로는 1개의 기기에서만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 지원 단말은 모바일, PC, TV 등이다. 모바일에선 안드로이드와 iOS 앱 마켓에서 U+아이돌Live 앱을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다. PC에서는 U+아이돌Live 웹사이트에서, IPTV에서는 U+tv를 통해 관람 가능하다.

/강준혁 기자